이상돈의 '바른 소리'

대통령 회고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다음 주에 출간된 예정이라고 한다. 회고록에는 4대강 사업이 성공적인 것이며, 해외자원개발도 나중에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 집권 5년 동안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한 그이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2011년 가을에 당시 한나라당이 몰락해서 식물 대통령이 되다시피 했던 사정을 생각하면 그가 오늘날 이렇게 당당해진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덕분이다.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들고 정당 이름도 바꾸어가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식이더니 결국에는 지지도가 30%로 급락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은 형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회고록을 낸 의도는 "책에 담은 내용 보다 자신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청와대에 보낸 것일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고를 겸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대통령을 그만 두고 나서 회고록을 내는 것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진솔한가 하는 데 있다. 회고록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3자가 쓴 대통령 전기이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들이 회고록을 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전기가 나온 적은 없다.

전기 작가는 회고록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다른 자료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전기를 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엔 주요 인사들의 회고록은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전기가 없는 것은 이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를 꺼리는 풍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 몇 년이 지나면 회고록을 내기 마련이다. 출판사들은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을 출판하기 위해 거액의 선인세를 주기도 한다. 빌 클린턴은 퇴임 후 강연으로 돈을 벌기에 바빠서 선인세를 받은 회고록 집필을 미루고 있다가 마감일이 닥쳐오자 전문 작가를 고용해서 급하게 원고를 끝냈다.

1990년대 IT 경제를 주도했던 클린턴이지만 정작 그 자신은 컴맹이라서 원고 작성이 힘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한 출판사는 클린턴 회고록 번역권을 거액을 주고 사서 번역본을 냈지만 잘 안 팔려서 파산을 했다.

조지 W. 부시는 도서관 사서 출신인 부인의 영향으로 책을 많이 읽었는데, 부시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라크 전쟁은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부시 회고록도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출간되었지만 판매는 부진했다.

베스트셀러가 된 미국 대통령의 회고록으론 로널드 레이건의 것을 들 수 있다. '한 미국인의 삶'이란 제목을 단 이 책은 자신의 성장과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역정,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겪은 일을 담담하게 그려놓았다. 하지만 레이건도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레이건은 낸시 여사와 금술이 좋기로 유명했지만 이들 부부와 자식들 사이는 냉랭했기 때문이다.

레이건 대통령 전기는 벌써 여러 권이 나왔고, 레이건의 비서실장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 비서실 차장을 지낸 마이클 디버, 스피치라이터를 지낸 페기 누넌도 각기 자신과 레이건과의 관계에 대한 책을 냈는데, 이들의 증언과 레이건의 회고록, 그리고 레이건 전기는 사실에 있어서 일치를 보인다. 역사 기록은 이래야 하는 법이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미국 대통령 전기는 데이비드 매컬로가 쓴 '해리 트루먼'이다. 본문이 1000쪽이나 되는 트루먼 전기는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평가 받는데,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도 이 책을 읽었다고 한다.

해리 트루먼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높이 평가 받는 이유는 그가 평범한 서민계층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 한국전쟁 참전 등 어려운 결정을 많이 내렸을 뿐더러 2차 대전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살펴서 1950년대 고도성장의 토대를 놓았지만 당대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지 마셜, 딘 애치슨, 오마르 브래들리 등 당대의 거물들을 중용하고 이들의 의견을 존중했던 트루먼의 리더십은 세월이 갈수록 한층 돋보이기에 트루먼 전기는 대통령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뽑히는 것이다.

대통령 노릇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회고록을 펴냈다면 그 내용은 읽으나 마나 뻔할 것이다. 이상한 궤변으로 가득 차 있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여권에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한다.

〈중앙대 명예교수〉

특별기고

'KTX 빨대효과'를 줄이려면

이 명 종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닭이 먼저 일까? 달걀이 먼저 일까? 닭이 있어야 달걀이 생기고 달걀이 있어야 닭이 생기니 어느 것이 먼저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적용되는 논리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 지금 수요가 적은데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와, 반대로 당장 수요는 적지만 개발해 놓으면 점차 수요가 살아나 번성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있다. 물론 이는 고전학파 경제학으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겪는 과정에서 케인즈학파의 유효수요이론에 밀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창조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논란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 일명 'KTX 빨대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송정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용산)에서 광주송정까지 1시간 반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광주에서 쇼핑시설이나 병원을 찾던 고객들이 KTX를 타고 서울의 백화점이나 병원을 이용하여 이 지역의 매출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측면, 즉, '빨대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대구의 사례를 보자.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1단계인 서울역~동대구역 구간이 개통되었다. 이때 대구의 백화점 이용객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어서 2010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인 동대구역~부산역 구간이 개통되자 이번에는 대구의 고객들이 부산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한다.

그럼 지금 대구의 상황은 어떠한가? 신세계그룹은 2014년에 착공해서 201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짓고 있다. 동대구역 근처에 부산의 센텀시티 백화점보다 더 큰 규모로 백화점, 복합환승센터 등을 건설하고 있지 않은가? '빨대효과'를 줄이기 위해 대구의 개발이 좀 더 빨랐으면 어떠하였을까?

일본의 나고야 사례를 보자. 나고야는 일본의 수도 동경과 제2의 도시 오사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신칸센으로 동경에서 나고야까지는 1시간 반 소요된다. 1964년 1단계로 동경역~오사카역 구간의 신칸센이 개통되자 나고야는 동경이나 오사카로 경제력이 흡수되어 지역경제가 피폐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나고야는 어떠한가? 1989년부터 역세권 개발에 나서면서 '빨대효과'에서 탈출했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나고야는 호텔, 백화점, 상업 및 업무지구, 복합환승센터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나고야역의 JR센트럴 타워스는 나고야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이 동대구역이나 나고야역의 사례를 보면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야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지금은 수요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특색에 맞게 개발해 놓으면 점차 수요가 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들어 기차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내리면 4월초 KTX가 개통되어 많은 손님이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역세권 개발이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곤 한다. 큰맘 먹고 남도의 멋과 맛, 볼거리를 찾아 광주송정역에 내렸는데 그 다음 행선지로 갈려고 하니 환승 시스템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심장에서 피가 대동맥을 타고 내려가다가 막판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모세혈관에 가서 막혀 있는 형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모두 'KTX 빨대효과'를 걱정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 필자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싶다.

종교칼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김 성 덕
광주 화정교회 담임목사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들이 좋은 심성을 갖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4S'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Soft', 부드러운 것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것을 말합니다. 둘째 'Smile', 미소입니다. 아름다운 미소, 예쁜 미소, 친절한 미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Sense'입니다. 감각능력, 민첩성, 분별력, 판단력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Spirituality', 영성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대립하고 경쟁하고 주도권 다툼을 하는 정치권의 모습도 그렇고, 운전 중에 일어난 시비로 말미암아 야구배트로 사람을 폭행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하고 자기 절제를 못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건과 사고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과 사회가 'Soft'하고, 'Smile'하고, 'Sense'있고, 'Spirituality'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태복음 11 : 29).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거칠고 교만했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럽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살결이 고우면 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음식이 부드러우면 더 맛이 있습니다. 의복도 부드러우면 더 따뜻하고 곱고 멋이 있습니다. 땅이 부드러우면 곡식이 더 결실을 잘 맺습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정감이 더 갑니다. 부드러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 옆으로 더 모여듭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는 약하지만 더 강인하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부드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태양과 바람'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서로 자신의 힘이 강하다고 다투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내기를 합니다.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존재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바람이 먼저 거센 태풍과 같은 바람을 불게 하면서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수록 옷이 벗겨질까봐 더 옷을 여미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람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데 실패했습니다. 태양은 나그네에게 강한 햇빛을 내리쬐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너무 더워서 스스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세차게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이긴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내려 빛을 발한 태양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시편 37 : 11)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큰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온유함의 부드러움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성품이나 행동이 너무 강해서 쪼개지고 부서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해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존경심이 나올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자, 부드러운 지도자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서 온 국민의 마음에 따뜻함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社 說

국토부 '서대전 경유' 이제야 여론 듣겠다니

국토부의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검토에 광주, 전남북은 물론 충북권까지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자체, 지방의회, 국회의원, 시민·사회·경제관련 단체, 지역 주민 등 민관 구분 없이 모두가 실리도 명분도 없는 경유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호남지역이 유례없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과장된 주장이나 액션이 아니다. 본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서대전역 경유가 호남고속철의 건설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과 수도권을 신속하게 연결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인데 45분이나 늦어지는 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실현이라는 국토부 자신들의 '국토철도망 기본계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직 효과도 크지도 않고 향후 성과도 의문인 서대전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호남 전체를 희생하라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또 다른 호남 차별이자 무시라는 모멸감에 호남민심은 분노하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호남고속철의 개통을 3월에서 4월로 늦추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개통 준비가 완료됐는데 경유문제가 의외로 커지자 시간을 벌어 여론을 달래보겠다는 속셈에 불과하다.

국토부 차관이 뒤늦게 '여론 수렴차'라며 29일 광주를 온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지역의 여론은 '절대 반대'이며 이미 수차례 여러 경로로 전달한 바 있다. 지역민심이 폭발 직전임을 몰랐다면 귀를 닫고 있었던 것이다.

국토부가 행여라도 경유 편수 축소로 호남을 달래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어떠한 편법으로도 호남민심을 돌릴 수 없다. '저속철'을 놓고 지자체와 협의하고 절충점을 찾을 일이 아니다. 정부는 여론 떠보기를 중지하고 서대전역 경유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무등산 등산로 '쏠림현상' 대책 마련 나서야

무등산의 주요 탐방로인 증심사와 원효사 등지에 등산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환경 파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간 무등산을 찾는 전체 등산객 중 90%가 증심사, 원효사 등 광주 도심과 인접한 탐방로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은 등산객은 총 381만여 명으로 이 중 90%에 이르는 341만여 명이 증심사, 원효사 등지에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산객의 60%는 증심사~장불재 구간을 찾았다고 한다. 반면 화순·담양 등 무등산 동부권 탐방로 17곳을 이용해 무등산을 찾은 등산객은 10% 수준인 39만여 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등산객들이 특정 탐방로에 쏠리는 것은 도심과 가깝다는 데 있으며 국내 산악형 국립공원 16곳 가운데 무등산이 유일하다. 무등산이 도립공원이던 시절부터 주요 등산로의 휴식년제 도입과 분산 등의 지적이 제기된 것도 자연 훼손에 대한 우려에서다.

무등산과 달리 지리산의 경우 탐방로 3곳에는 각각 95만여 명, 101만여 명, 96만여 명이 입산하는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무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별도의 주요 탐방로를 개설하고, 장기적으로 증심사와 원효사 등지의 일부 탐방로에 대해 휴식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탐방로를 무분별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만큼 주요 탐방로를 내더라도 광주시와 전문가, 시민과의 협의·여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무등산은 산으로서의 역할에 앞서 광주의 어머니이자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의미가 남다르다.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1000m 이상의 산이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 관계기관을 비롯 광주시민, 무등산 일대 주민들이 자연 생태계 보호와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無 等 鼓

도청 앞 시계탑

기악곡 '시계탑'은 가야금 명인 황병기의 대표 작품이다. 황씨는 1999년 서울대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링거병을 달고 운동 삼아 건물 복도를 걷던 그의 눈에 시계탑이 보였다. 평소에는 별 감정이 없었는데 그날 바라본 시계탑은 전혀 느낌이 달랐다.

현실이 힘들다 보니 오히려 아주 아름다운 곡을 쓰고 싶었다.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마지막 악장을 떠올리며 곡을 썼다. 그게 바로 '시계탑'이다.

고종황제 직령으로 건립된 대한의원(서울대학병원의 모태)에 시계탑이 세워진 건 1908년이다. 1880년대 말 관문각, 1901년 한성전기회사 사옥에 이은 국내 세 번째 시계탑이지만 두 건물이 사라지면서 가장 오래된 시계탑이 됐다.

시계탑은 한 도시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홋카이도 오타루에는 증기 시계탑이 있다. 보일러로 증기를 만들어 1시간마다 시각을 알리고 15분마다 5음계의 멜로디를 연주한다. 영국의 빅벤, 프라하의 천문시계 역시 관광객들이 꼭 눈도장을 찍는 시계탑이다.

2015년 1월 28일 오후 5시 18분.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세워진 시계탑에서 흘러나오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었다. 사람 발길이 뜸한 광장에선 한 청년이 스케이드 보드를 타고 있었다. 묘한 느낌이었다.

27일, 사연 많은 시계탑은 35년만에 원래 자리를 찾았다. 1971년 일본청년회의소가 우호의 상징으로 시계탑을 증정했다. 손목시계가 흔치 않던 시절, 시계탑은 약속 장소였다. 5월 항쟁 때는 시계탑 앞에서 시민군과 계엄군의 전투가 벌어졌다.

5월 항쟁 직후 수난이 시작됐다. 신군부는 한밤 중에 시계탑을 서구 농성동으로 옮겨버렸다. 탑에 달려 있던 시계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독일 언론이 '시계탑은 알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 게 발단이었다. 시계탑 하나도 마음대로 세우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절이었다.

복원된 시계탑에는 옛 모양 그대로 시계를 만들어 달았고 대리석도 입혔다. 오후 5시 18분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흐른다. 시계탑이 기억하는 많은 '사연'과 함께, 이제부터 시계탑에 우리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으면 좋겠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광주의 명물이 되길.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